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29	12. 06	12. 13
대표 기도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성경 봉독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이수현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엡1~6, 빌1~4, 골1~4, 살전1~5, 살후1~3, 딤펴1~6장)
 2. 수요일예배-매 주 수요일 오후 7시 Zoom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 청년 성경 모임-매 주 금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모입니다.
 4. 이사 - 박에스더 자매(24일, Mannheim)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임미수 성도(26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77장 다같이
 기 도 Gebet 박재기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출20:12, 신5:16 박재기 집사
 (2.Moses 20:12, 5.Mose 5:16)
 설 교 Predigt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79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우리 생애 최고의 해

2차 세계대전 후 한 세대 군인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다룬 1948년 개봉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Harold Russel은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은 채 장애아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으로 글도 쓰고 타이프도 칩니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 장애인의 모습으로 직접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껏 열심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출연료를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용사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에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백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 박현성 목사
(나성 열린문 교회 담임)

* 믿음은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야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신다는 약속 앞에 엎드린다. - Andrew Murray(남아공 저술가) -